

中 관광객 유치 전략·인프라 개선 시급

광주·전남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쇼핑과 언어 소통, 대중교통 연계와 관광안내 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관광정보 입수통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 구성에 중국어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고, 관광지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과 중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서비스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국제교류본부가 중국인 유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관광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광주·전남의 관광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방문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5명 중 4명꼴로 지역 내 관광지 방문 경험이나 계획이 없는 셈이다.

또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임에도 SNS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관광 정보를 얻는 민족도는 3.59점(5점 만점)에 불과해 저자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중국인 유학생 303명 설문

쇼핑·대중교통·관광안내 등 중국어 서비스 부족 5명 중 4명꼴 "지역 관광지 방문 경험·의사 없어"

체들이 SNS 관광정보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국인의 선호를 반영한 콘텐츠와 디자인을 강화하고, 중국어 관광안내서비스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민족도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각 항목별 민족도에 비해 일부 항목의 경우 평균값 이하를 보인 것으로 조사돼 서비스 측면의 개선도 절실히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민족도는 3.76점(5점 만점)이었는데, 치안(4.02점), 관광지 매력도(3.77점), 가격·숙박(3.77점)은 평균값 이상이었던 반면 언어 소통(3.64점)과 음식(3.66점), 관광안내

서비스(3.69점), 쇼핑(3.71점), 대중교통(3.73점)은 평균값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광주·전남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 자연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어 기반의 관광안내서비스, SNS·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우선하고 있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개설과 기존 쇼핑시설의 중국어 안내서비스 확충, SNS 관광 정보를 활용해 쇼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마케팅 전략 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정은성 교

수는 "2017년 문체부의 한국여행정보 입수경로를 보면 외국 관광객의 71.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중국인 여행객은 71%가 친구나 친지, 동료 등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국 유학생은 국내 여행 정보를 자국에 제공하는 '최고의 흥보 대사'라고 할 수 있다"며 유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관광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 통계 결과 광주·전남에서 개최된 지역축제가 114개나 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8.9%만이 지역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참가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지역축제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광주·전남 자체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5일 호남대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303명(남 184, 여 119)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4.91%(95% 신뢰수준)이다.

신봉우 기자

전남 일부 시·군 도입

농민수당, 복지부 허용

지금 규모·대상만 남아

전남 일부 시·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허용했다.

10일 복지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등 4곳 시·군이 제기한 농민수당 도입 여부에 대한 협의의 신청에 대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이로면 3일째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시·군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 도입이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대상과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맹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농민수당 규모가 시군별로 연간 60만~120만원으로 둘 사이에 있다.

지금 대상도 지자체는 농가 경영체별로, 농민단체 등은 개별농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경환 기자

동구, 생활체육 인프라 대대적 정비

광주 동구가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구국민체육센터와 동구문화센터 등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산수동에 있는 동구국민체육센터(필문대로 205번길 17)는 오는 7월부터 3층에서 4층으로 한계 층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진행한다.

소태동에 위치한 동구문화센터도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에 나선다. 예산 11억여 원을 투입해 수영장 시설 보수, 체육관 바닥·조명 정비, 노루 기계설비 교체,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등을 실시한다. 동구는 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 중 공사에 들어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서구, 행복학습센터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행복학습센터는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구 관내 9개소를 권역별로 지정·매니저를 배치했다.

거점기관인 서구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권역별 지정센터는 서구 농성문화의집·화설관·미술관·보나담 작은도서관·서창한옥문화관·강아지똥작은도서관·두련작은도서관·다리마을도서관·행복학습센터·아이숲작은도서관·마을커뮤니티통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38개 프로그램이다.

남구 "광견병 예방접종, 지금 챙기세요"

광주 남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법정 가축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 접종사업을 실시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18일까지 관내에서 사육 중인 개 1,000마리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

개를 소유한 견주는 접종 기간에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 키로 한 관내 17곳 동물병원 가운데 1곳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농촌동 지역에 거주하는 견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수의사의 방문접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종료는 두당 5,000원이다.

북구,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 선정

광주 북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19년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로 선정됐다"라고 1일 밝혔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들의 지방적인 체력인증 참여 동기 부여와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정부 사업으로 현재 전국 42개의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해 광주 북구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 1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와 체력측정 장비 일체를 지원받게 된다.

광산구, 옥외광고업무 평가서 대통령 기관표창

4월 25일 광주 광산구가 움산동구 리한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19년 상반기 옥외광고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2018년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시상금 4,500만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적과 옥외광고업무 정책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날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임형택 기자

제9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김대중강당에서 800여명 새마을지도자 참석



전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4월 30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 도지사, 이용재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22개 시군 새마을단체장 등 도내 새마을지도자 등 내외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 제9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에 대한 관심 고조를 위해 1970

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여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이며, 기념식은 9회째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김경환 기자

장진군 공고 제2019-298호

장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주민의견 청취제공란 공고

장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장진군 군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함·공고합니다.

2019.5.2.

장진군수

1. 공란내용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19.5.3. ~ 2019.5.16. (14일간)

나. 장 소: 장진군 건설과(도시경관팀)

3. 관련도서 및 도면: 계획생략(공람장소 비치)

4. 의견 제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대신하며,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장진군 도시경관팀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진군 건설과(061-430-3994)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입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산36, 36-1번지

2. 분묘 기수: 4기

3. 개장 사유: 토지 활용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인치장소: 천상의 집 추모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160-83번지)

6. 안치기간: 개인 칠일로부터 10년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 인: (사) 대한불교 선각종 선각사 주지 선각

9. 신고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60-83번지

연락처 (061-534-1304)

10. 신고 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전 활용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 등본, 호적, 죽보, 사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추가 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9. 05 . 02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 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